



전남대병원, 심장재활 치료제 개발 협약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4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엘앤에이치랩스(이현민 대표)와 운동부하 검사 기반 심장재활 디지털 치료제 및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3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권역 심뇌혈관재활센터(김원석 센터장), 충남대학교병원 심뇌재활센터(문창원 센터장), 동아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이종화 교수) 등 4개 병원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엘앤에이치랩스와 함께 진행됐다.

㈜엘앤에이치랩스는 전남대병원 심뇌재활센터 한재영 센터장을 CMO(Chief Medical Officer)로 영입한 후 전남대병원의 '병원중심 AI기반 디지털생체의료산업 고도화사업(사업단장 조형호 교수)' 지원으로 '하루핏 카디오 DTx(Harufit Cardio DTx)' 심장재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조달청, 보성서 '공공조달길잡이' 상담

광주지방조달청은 30일 보성 미력농공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공공조달길잡이'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방문은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이날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주요 조달제도 안내하고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광주조달청은 컨설팅 전담관 2명을 지정·배치해 지역 중소기업들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소방안전본부 '10월 우수소방인' 선정

광주 동부소방서 박충노 소방위, 서부소방서 조계삼 소방장, 남부소방서 최윤영 소방장, 광산소방서 전현석 소방위·김세원 소방교가 '10월의 광주 우수 소방인'으로 선정됐다. (사진)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10월 광주소방을 빛낸 우수 소방인'으로 박충노·전현석·조계삼·최윤영·김세원 소방관을 선정, 표창했다.

최윤영 소방장은 지난달 퇴근길에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인명을 대피시킨 후 자신의 차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가져와 신속히 초기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 전현석 소방위(화재출동), 김세원 소방교(구조출동), 박충노 소방위(구급출동), 조계삼 소방장(생활안전 출동)은 지난 6개월간 현장활동 분야별 최다 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병하 기자



광주기독병원, '결핵 적정성 평가' 1등급

광주기독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 6차 결핵 적정성평가'에서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사진)

30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결핵 신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시행한 50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결핵환자 관리 수준)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고, 모니터링 지표는 △(치료결과)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중별평균 점수 94.0을 웃도는 96.7 점수를 받았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매개성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OECD국가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초기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고 항결핵제의 꾸준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적십자 광전지사, 소방학교서 나눔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8일 장흥에 위치한 전남소방본부 전남소방학교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나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신규 임용 소방대원 7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긴급구호활동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도주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문병은 전남소방학교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책임기관으로 소방과 연관이 깊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현장 속 양 기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소방본부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023년 △재난발생시 특수구조차량 및 이재민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상담 협업 △소방학교 교육생 대상 연중 나눔교육 진행 등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환아 '희망 백일장'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아들이 예술적 재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백일장이 열렸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제15회 꿈으로 만드는 희망 백일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교육이나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해마다 환아들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취지로 희망 백일장을 열고 있다.

공모 분야는 글짓기와 그림이며 참여 환아들은 정해진 기간에 소아청소년과 외래와 병동, 여미사랑병원학교에 완성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2월17일 열리는 '제24회 완치잔치'에서 발표된다. 글짓기와 그림 분야별 금상, 은상, 동상 각 1명과 장려상 2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동신대 스포츠의학과, 과학기술경진대회 2개 부문 금상

동신대학교 스포츠의학과 학생들이 최근 개최된 제25회 운동사대회 및 제23회 대학생 과학기술경진대회에 참가해 두 가지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

지난 29일 동신대 스포츠의학과에 따르면 대학생논문발표(실험연구) 부문에서 김윤서씨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KPOP GROUP EXERCISE CONTEST 부문에서는 이견창씨 팀이 금상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다.

김윤서씨를 비롯한 6명의 학생은 '엘리트 축구 및 태권도선수의 전방십자인대 부상 위험요인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착지 오류 점수와 근전도 적용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견창씨 팀은 K-POP의 안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상 재활 목적의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금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고려해 일반인도 쉽고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게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생애 주기별 임상에서 흔히 유발되는 부상을 근거로 운동 효과가 검증된 동작을 구성하며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동신대 스포츠의학과 학과장 조지훈 교수는 "과학적인 접근과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의학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면서 "학생들이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민희진 "가처분 인용 기대 안해... 소송 끝까지 갈 것"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소송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9일 생중계된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크 오브 뮤직' 라이브에서 "(이번 가처분은) 전례가 없어서 승소(가처분 인용 결정) 확률을 10~20% 정도로 봤다"면서도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양다리?... 사생활 논란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며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주목받은 요리사 트리플스타(33·강승원·사진)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트리플스타는 A와 지난 2014년 미국에서 만나 2022년 5월 부부의 연을 맺었고,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다. 이들은 3개월 만에 이혼했다.

해당 보도에는 전 부인 A와 전 여자친구 B가 등장한다. A는 트리플스타의 이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와 양다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B는 트리플스타에게 '잠수이별'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B는 "보통의 연인처럼 교제하다 하루아침에 아무 설명도 이유도 없이 이별을 당했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시기에 다른 여자랑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 사과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연락



민 전 대표는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라도 한 번 꺾이면,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했다"며 가처분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내 결백함과 순수함이 드러낼 수 있었다"고 부연하며 "나는 재네(하이브)의 주장처럼(회사들) 나가려 한 적이 없다.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이에 트리플스타는 "B와 1~2개월 정도 만났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A는 트리플스타가 쓴 반성문도 공개했다. 디스패치가 확인한 트리플스타의 반성문(편지)에는 "나는 쓰레기다. 여자를 좋아하고, 더러운 탐욕을 품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A는 지난해 8월 남자친구가 생기자 트리플스타가 '칼로 찢러 죽이고 싶다' 등의 협박도 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도 안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결혼과 가계를 오픈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배신감에 상처가 컸다"고 토로했다.

이에 트리플스타는 "B와 1~2개월 정도 만났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A는 트리플스타가 쓴 반성문도 공개했다. 디스패치가 확인한 트리플스타의 반성문(편지)에는 "나는 쓰레기다. 여자를 좋아하고, 더러운 탐욕을 품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A는 지난해 8월 남자친구가 생기자 트리플스타가 '칼로 찢러 죽이고 싶다' 등의 협박도 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